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28, 히브리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역사와 문학 히브리서 28강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몇 마디만 발표하면 됩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Red Sox 팬에 대한 나의 동정심입니다.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의 팬이고 그들은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한다.

둘째, 오늘 밤 8시에 이 방에서 추가 신용 검토 세션이 있으므로, 나타나서 질문을 가져오고 시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추가 크레딧을 위한 것입니다. 세션 수에 따라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중 4개가 있을 것이므로 하나만 표시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최대 4개까지 표시된다면 분명히 최종 성적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8시에 이 방에서 추가 학점 검토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전 시험 성적은 금요일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모두 등급이 매겨져 있으므로 계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보통 TA가 칠판에 올려 놓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녀에게 갔고 금요일까지 Blackboard에 올라올 것입니다.

응, 좋아. 좋습니다. 저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학습 가이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칠판에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 컴퓨터에서는 하루 종일 Blackboar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자마자 칠판에도 올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학습 가이드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밤 검토 세션에 오신다면 해당 항목을 다운로드하거나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히브리서를 보기 시작했고 오늘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금요일은 히브리서의 어떤 내용도 다루지 않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편지 중 마지막 편지인 디도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부터 디도서까지,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증거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형태의 계시의 일부를 고려할 때 여러분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첫 번째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을 받고 이해하였지만 오늘날 당신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기독교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자는 아마도 아직 그리스도와 이 새 언약의 구원과 믿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동안 그들의 조상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이 새 언약의 구원에 등을 돌렸습니다.

저자가 하려고 하는 것은 책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기관 및 인물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성취를 가져오시고, 클라이맥스 원래 구약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우월한 수단이심을 보여줌으로써 저자는 독자들이 내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을 다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구약의 율법보다 우월하시며, 구약의 성막과 성전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설명과 권고를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옛 언약, 희생 제도에 대해, 예수님이 그것들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자는 독자들에게 왜 지금 더 큰 방식으로 성취된 어떤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지 확신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므로 그것을 등지면 잃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품고 달려가도 얻을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마도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복음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교의 이전 종교 체계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어려움의 일부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경계가 현재 다소 흐려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자는 이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돌아가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저자가 구약 자체로부터 구약이 구약의 일시적인 성격을 지적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성취를 가리켰고 이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일어났다고 확신하며 독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제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살펴보고 싶은 다음 부분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저자는 다시 독자들에게 유대교로 돌아오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등을 돌리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비교나 비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특정 기간 동안입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개관하거나 개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측면, 즉 광야 세대, 즉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서 땅을 취하라고 백성들을 권유했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니라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세대를 죽이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출애굽으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사이의 기간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긍정적인 격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거부한 기간이다. 히브리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것을 실행하는 모델이나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옛 언약의 백성을 다시 광야를 통과하여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까지 여행하고 그 길에서 성막이 그들과 동행한 자들을 비교합니다.

성막은 일종의 이동식 성전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며,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헐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보다 영구적인 건축물인 성전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저자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새 언약의 백성을 비교합니다. 그는 다시 이 시점에서 주로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그들을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렀으나 반역하고 들어가기 거부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하는 일은 그것을 휴식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얻을 수 있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 즉 광야 세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기를 거부하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안식을 경험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그 안식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다시 1세기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너도 안식의 약속이 눈앞에 있는데, 너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 안식에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믿지 않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나머지를 잃어버리고, 대신에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신약의 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안식의 약속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 같이 그것을 날려버리지 말라. 그럼, 여러분은 연관성과 비유를 보시나요? 그는 다시 기본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서신을 그리고 있으며 이제 그의 독자들 역시 유대인이지만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에 반응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궤도. 그러나 다시 저자는 그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의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독자들이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현재 가능한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경험하게 된 육체적 안식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예표이거나 기대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큰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게 될 안식은 어떤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구약에서 그 땅이 상징하는 것과 무엇을 가리키는지,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안식과 구원이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그것을 원합니다. 메시지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거부한 옛 언약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들이 옛 조상 종교로 돌아가면. 하지만, 하지만, 저자가 말한 나머지 부분을 보고, 3장과 4장을 읽을 때 휴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지 알아차리셨나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그 땅에서 안식하고, 그 땅에 안주하며,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더 큰 안식의 예표나 기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가능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상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을 놓치고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에는 이것이 제가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지 않은 온갖 종류의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안식일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가? 구약과 유대교 전체에서 그들은 창조를 근거로 제칠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느 시점에서 기독교인과 교회가 일요일에 모임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종류의 새로운 기독교 안식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게 되어 기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저는 신약성서와 히브리서 3장과 4장과 같은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안식일, 즉 일주일 중 하루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안식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장과 4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안식일을 이행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매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이며,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음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마련하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도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했던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구원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날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대형 교회들도 지금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일종의 새로운 안식일로 기념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성취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안식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자가 하고 있는 일, 즉 그가 구약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려고 한다는 것, 즉 구약성서 이스라엘 생활의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지금 자신과 독자들에게 일종의 모델이나 예로 사용합니다. , 그의 독자 중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성취시대에는 여러분에게도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그것을 날려버리거나 믿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희생 제도에 비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의 주요 모델은 주로 성전이 아니라 성막입니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암시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는 서기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후에 쓰여졌음에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서기 70년은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탈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전은 이 시기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저자가 성막을 자신의 모델로 삼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제사제도와 제사장직에 비유할 때 성전보다는 성막에 대한 묘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광야 세대를 주된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세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세운 장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자가 성막에 호소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 전체와 유대교의 전체 삶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 삶의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광야 세대가 그것이다. 그 동안 그들은 성막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이 약속된 안식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일종의 모델로서 광야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호소합니다.

이제 3장과 4장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3장과 4장은 실제로 약 6개의 경고 구절 중 두 번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가장 최근에 치른 퀴즈가 아마도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퀴즈는 히브리서의 특징 중 하나인 히브리서의 특징 중 하나와 관련된 질문 중 하나인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는 독자들에게 대한 다소 엄중하거나 날카로운 경고가 잠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만약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들의 조상 종교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 경고 구절은 어떤 의미에서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깨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하려고 하는 일의 위험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경우,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경우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독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다소 엄격하거나 단호한 경고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조상 종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고 구절 중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이미 읽은 것 같지만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저자는 8절까지 읽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 4장부터 8장입니다. 이것은 경고 구절 중 하나이거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는 강해와 권고 사이를 오가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소 엄격한 경고 중 하나를 포함하거나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보세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인 수치와 멸시를 받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고 그 위에 계속 쏟아져 발가는 사람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쓸모가 없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어 결국에는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돌이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보내는 그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텍스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여러 경고 구절 중 하나일 뿐이지만 꽤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자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에 참여하고, 성령을 받고, 이제는 타락한 자들이니라.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결국에는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내 말은, 저자가 묘사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이러한 경고 구절, 즉 다소 엄격한 경고를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가 방금 읽은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26절입니다. 다시, 그는 같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경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에 거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두려운 심판과 원수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을 뿐이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는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욕되게 하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중한 형벌을 받아야 하리요? 원수 갚는 것이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빛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받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거나 버릴 위험에 처한 자들이니라. 그는 누구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경고를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슬라이드의 순서가 여러분 노트의 순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트에서 건너뛰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가 단지 가설일 뿐이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독자를 깨우기 위한 작가의 수사학적 방식일 뿐이다. 마치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정말로 타락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가능한 견해는 이것이 실제로 구원을 상실하고 상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고 더 이상 그분을 믿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잃거나 상실하게 됩니다. 구원. 그것은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때 경험하고 소유했던 그 구원은 이제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상실되고 포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아르미니안의 견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미니안 견해는 역사적으로 순종과 인간의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야콥 아르미니우스(Jacob Arminius)라는 개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명되었으며,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때때로 아르미니우스적 견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내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은 한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실하고 잃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칼빈주의(Calvinism)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구원을 강조한 존 칼빈(John Calvin)의 사상과 종종 연관되거나 그 사상의 일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견해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찌 좌절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좌절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저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그들이 애초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거나 배교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애초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옵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견해는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두 가지 주요 견해이며 종종 서로 충돌해 왔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저자가 실제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비유를 들자면 떨어져 나가거나 불에 타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잃지 않으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단순히 보상을 잃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순종하는 사람들만큼 많은 보상이나 축복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는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그들은 여전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만큼 많은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 기본 옵션입니다.

나는 이것만큼 흔하지 않은 소수의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첫 번째와 마지막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가 어려운 이유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권고의 말을 쓰는 저자가 단순히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자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러한 관점에는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지만, 보상을 잃는 것으로 축소되기에는 언어가 너무 뾰족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불에 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아, 보상을 잃어가고 있는 것 뿐이군요.

그것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도 정말 잘 맞는지 확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것을 이해해야 할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처음 읽었던 6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이해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질문 중 하나는 독자들이 어떤 죄를 범할 위험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경고 구절에 대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들이 범할 위험이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수많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낙태의 죄가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자살하는 것이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성찬을 취하지 않거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거나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자격이 있습니까? 저자가 말하는 것이 죄인가? 저자가 말하는 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생각됩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내가 읽은 마지막 글에서 저자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것은 독자들이 의식적으로 행할 일입니다.

즉,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이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며, 특정 죄와 동일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자는 주로 자신이 말했듯이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고의로 그것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오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 나는 단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시며 그분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귀하의 강의 계획서에 나열한 두 번째 질문은 독자가 누구입니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제가 이 경고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는 이 독자들이 적어도 대부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는 내가 말했듯이 그 중 일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전히 조상의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지점에 있으며, 복음 안에서 알고 경험한 것, 심지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거부하려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와 복음의 궤도 안에 들어왔고,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기꺼이 등을 돌리고 조상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응답하지 않았으며 아직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저자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구약의 조상들처럼 행동하면서 불신과 반역과 완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저자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장과 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독자들이 누구의 영적 상태인지, 구약성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저자, 이것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본문의 일부인 3장과 4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구약의 사람들과 명확하게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열려 있고, 이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안식하는 약속된 안식이 여전히 열려 있는 동안, 약속된 안식은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당신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주제는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올라왔지만 들어가기를 거부한 구약의 백성이다.

그는 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왔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이 안식에 들어갈 좋은 소식,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소식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소식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즉 그들이 들은 말씀과 이 좋은 소식과 이 복음과 다른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합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에 저자는 그의 독자들도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복음을 전파했지만 아직 믿음을 통한 관계를 굳건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으로 그 복음의 좋은 소식에 완전히 반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인물, 제도, 사건, 희생, 성막 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일을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의 성취이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할까요? 그것이 가리키는 현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오는 구원과 안식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왜 그것을 원하고,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그것에 등을 돌리고 싶어할까요? 그래서 나는 이 독자들이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에 반응하고, 교회의 범위 안에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그들은 복음을 놓칠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독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 곧 구원, 새 언약의 구원을 완전히 놓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경고 중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 히브리서 4장, 특히 4장부터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부터 6장은 세 번째 경고이자 주요 경고입니다. 2장에 하나가 있고, 3장과 4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에는 두 개의 경고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느니라 오다가 그들은 떨어져 나갔느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멸시를 받느니라. 땅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자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맺는 땅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를 받아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쓸모가 없고 저주를 받아 마침내는 멸망하여 불사름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 텍스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과 선한 말씀을 맛보았으나 타락하였느니라. 제가 집중하고 싶은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례대로 보면 깨달음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의 선함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저자가 독자를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 번, 나는 그가 자신의 독자들, 아마도 로마에 있던 1세기의 독자들, 유대인, 그리고 그가 쓴 독자들에게 반응을 보였을 유대 기독교인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왜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는가? 아니면 이 문구가 당신의 마음 속에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단지 커플 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누가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 어딘가에서 제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출애굽 때, 하늘의 선물은 무엇이었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오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거듭해서 묘사됩니다. 그것은 그의 양식과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당신은 좀 더 집중했는데, 깨달음이라는 이 문구는 어떻습니까?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세대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를 방황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세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하늘의 선물인 만나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떻습니까? 같은 세대, 같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무엇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이 성막을 챙겨서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의 선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맛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 뭐야? 이걸 언제?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준 불기둥입니다.

좋은. 성령을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말은, 확실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랬나요?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광야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시대라기보다는 권력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무엇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나 기사, 또는 이것을 번역하는 다른 방법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추측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이거나 능력은 무엇이였을까요? 괜찮은. 뱀에게 물렸을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치유처럼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제공.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언급하는 시편 몇 편에서는 그것을 능력이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네가 옳아. 그것은 아마도 어느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기적적으로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공급하신 모든 방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마도 무엇에 해당합니까? 다시 광야세대와 제가 여러 번 정리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광야세대의 역사에서 배도는 무엇에 해당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하는 광야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길을 밝게 하기 위해 불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의 선물로 주신다. 그들에게 성령도 부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의 선한 말씀, 곧 율법을 맛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오른쪽.

정확히 맞습니다.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자는 이스라엘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도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이 모든 일을 경험했지만, 그들 역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도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가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가 여전히 그의 독자들을 광야 세대에 비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기독교 독자들에게 그들의 조상을 생각나게 할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 역시 이 모든 일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떨어져 나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당신도 같은 일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거부하지 말고 그 안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처럼 행동하여 그 구원을 놓치지십시오.

오른쪽?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하지만, 흥미롭게도 다른 모든 경고 문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모든 경고 구절에서는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예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치

그가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큰 것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가오는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문은 구약에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큼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놓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 대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등을 돌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저는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트에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멈춰서서 지배적인 주제가 있을 때마다 그 주제가 구약에서 어떻게 자라나 신약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속하기 전에 히브리서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히브리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파악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구약성서에서 시편 110편 외에 그가 언급된 유일한 곳은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의 그의 생애에 대해 간략하고 비밀스럽게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의 약간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해 아무 것도 듣지 못합니다. 즉,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이 신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거기에 속하십니까? 따라서 남은

생애 동안 바쁘게 생각하고 탐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넓은 차원에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독자들이 무엇을 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세부 사항을 채우려고 할 때 때로는 상황이 약간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히브리서의 주요 취지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붙잡는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관참은. 여행, 즉 언약을 시작하기만 하면 언약의 개념, 특히 새 언약이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몇 번 암시한 것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언약의 개념은 실제로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록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아마도 여러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자녀 또는 그분의 백성으로 입양하시는 곳에서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확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문구를 자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하시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입양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언약의 일부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종은 약한 쪽의 몫입니다.

대개 하나님은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으로 입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겠지만, 그 응답으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었습니다. 언약 관계에는 또한 언약 관계에 따라 살거나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나는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그들은 그 결과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언약의 개념,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확립하여 한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채택하신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언약의 규정에 대한 순종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자세히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고 세우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강화되거나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의 아버지가 되면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도 있다. 여기서도 분명히 생각되는 바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최우선적인 규정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은 그들이 법에 순종하여 반응하는지 여부에 기초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언약의 길,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길, 인류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길은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하나님은 언젠가 자신의 백성과 맺고자 하는 언약 관계의 궁극적인 표현이 될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옛 언약 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백성으로 채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새 언약을 시작하시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을 제정하실 것이며, 구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제 신약성서, 특히 히브리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약성서 저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새 언약의 구원, 새 언약의 마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된 방식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있을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성취에 앞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에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금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월요일에 우리는 언약에 대해 알아보고 야고보서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신약역사와 문학 히브리서 28강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